

서울대학교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교수 梁 源 植

- 목 차 -

- I. 서 론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 2. 조사방법
- III. 조사성적
- IV. 총괄 및 고안
- V. 결 론
- VI. 참고문헌

I. 서 론

우리나라에 치과교정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1920년대 이후 그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치과 교정치료는 1964년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 병원에 교정과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치과 교정치료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88년 6월에는 본 병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가 10000명을 넘기에 이르렀다. 1965년도부터 1974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1000명이 내원하였던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한해 동안에만도 1000여명의 신환이 내원하는 교정 수요의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의 양적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환자들에 대한 수요의 특성을 파악하여 치과교정학 교육의 방향 및 치과교정 전문인력의 확보등에 하나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교정과에 1985년 1월 4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내원한 환자중 진단용 모형, Cephalogram 및 Orthopantomogram이 갖추어져 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에 한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1) 연도별 내원환자의 분포

5년간 내원한 환자수의 변화추세 및 남녀별 내원 환자수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2) 연령별 내원환자의 분포

연령군을 6세미만, 6세이상에서 8세미만, 8세이상에서 12세미만, 12세이상에서 18세미만,

18세이상의 5개군으로 구분하여 내원환자의 분포 및 연도별 변화추세를 조사하였다.

(3)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에 의한 내원환자의 분포

5년간 전체 내원환자를 Angle씨 부정교합분류법¹⁸⁾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다시 연령군별, 연도별로 나누어서 그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였다.

III. 조사성적

1. 연도별 내원환자의 분포

환자의 수는 1987년에 7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표 1, 2, 그림 1), 5년간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2). 남녀별로 비교하였을

경우 여자가 60.57%로 39.43%인 남자에 비해 1.55배 더 많이 내원하였다(표 1).

표 1. 연도별, 성별 내원 환자의 분포.

연도 \ 성별	남 자	여 자	총수
1985년	235(37.84)	386(62.16)	621
1986년	247(38.90)	388(61.10)	635
1987년	316(41.58)	444(58.42)	760
1988년	231(37.93)	378(62.07)	609
1989년	274(40.29)	406(59.71)	680
총 계	1303(39.43)	2002(60.57)	3305

()안은 PERCE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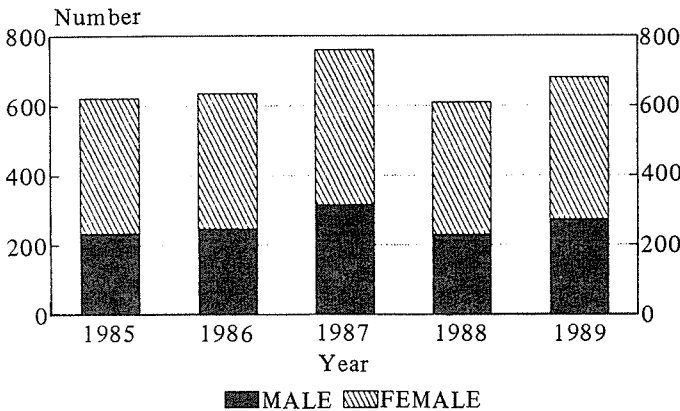


그림 1.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내원한 환자수의 변화 및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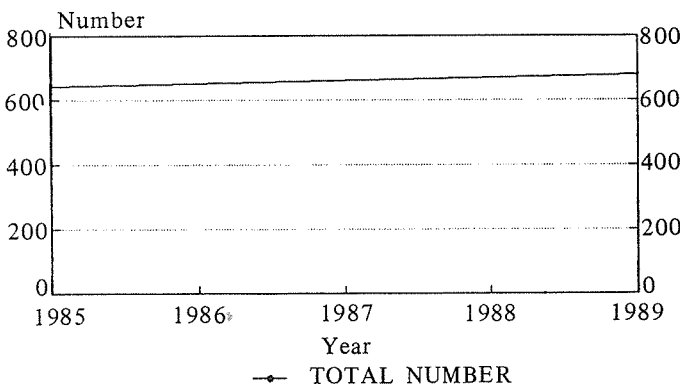


그림 2. 1985년 부터 1989년까지 총내원 환자수의 추이

표 2. 연령군별 내원환자의 분포

연 도	성별	연령					Total
		-6	6-8	8-12	12-18	18-	
85	Male	9	26	104	79	17	235 (37.84)
	Female	16	41	151	116	62	386 (62.16)
	Total	25 (4.03)	67 (10.79)	255 (41.06)	195 (31.40)	79 (12.72)	621
86	Male	8	32	115	71	21	247 (38.90)
	Female	14	39	138	118	79	388 (61.10)
	Total	22 (3.46)	71 (11.18)	253 (39.84)	189 (29.76)	100 (15.75)	635
87	Male	9	36	112	111	48	316 (41.58)
	Female	20	48	140	145	91	444 (58.42)
	Total	29 (3.82)	84 (11.05)	252 (33.16)	256 (33.68)	139 (18.29)	760
88	Male	11	27	94	59	40	231 (37.93)
	Female	19	60	123	92	84	378 (62.07)
	Total	30 (4.93)	87 (14.29)	217 (36.63)	151 (24.79)	124 (20.36)	609
89	Male	5	35	111	65	58	274 (40.29)
	Female	8	40	144	95	119	406 (59.71)
	Total	13 (1.91)	75 (11.03)	255 (37.50)	180 (23.53)	177 (26.03)	680
Total		119 (3.60)	384 (11.62)	1232 (37.28)	951 (28.74)	619 (18.73)	1303 (39.43) 2002 (60.57) 3305

()안은 PERCENTAGE

2. 연령군별 내원환자의 분포

6세미만의 환자는 119명, 6세이상 8세미만은 384명, 8세이상 12세 미만은 1232명, 12세이상 18세미만은 951명, 18세이상은 619명으로, 6세미만이 3.6%, 6세이상 8세미만이 11.62%, 8세이상 12세 미만이 37.28%, 12세 이상 18세미만이 28.74%, 18세이상 18.73%를 차지하였다(표 2, 그림 3). 각 연령군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표 2 또는 그림 4와 같으며, 각 연령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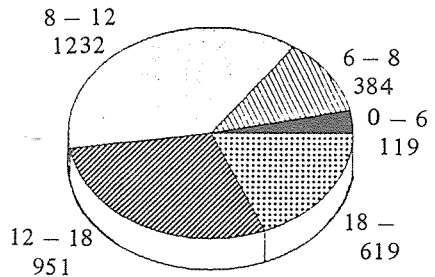


그림 3. 각 연령군별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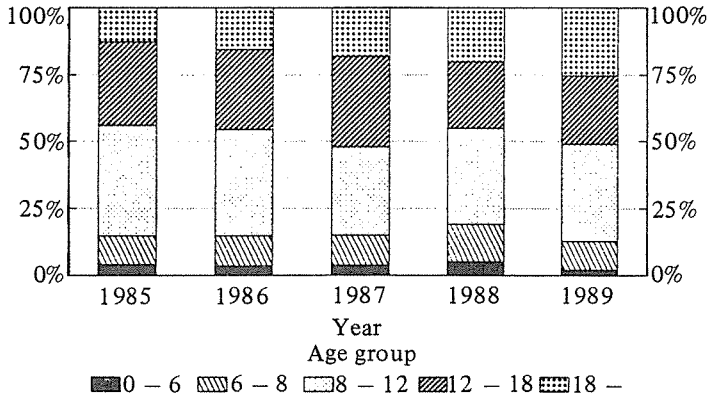


그림 4. 1985년에서 1989년까지 연령군별 차지하는 비율의 비교

의 매년 변화되는 추세를 보면 그림 9에서와 같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연령층인 8세-12세군과 12세-18세군의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는 것을 보였다. 반면 18세이상의 환자는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3.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별 내원환자 분포

Angle씨 분류법에 의한 환자의 분포를 보면, Class I이 1187명(35.92%), Class II div.1이 443명(13.40%), Class II div. 2가 51명(1.54%), Class III가 1624명(49.14%)이었다(표 3, 그림 5). 이 결과에서 보듯이 Class III환자가 가장 많이 내원하였다.

각 부정교합군별로 환자 비율의 추세를 보면, Class I 부정교합의 환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Class III 부정교합의 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냈으며, Class

II div.1과 div.2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6). 연령별로 Angle씨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경우, 환자가 어릴 수록 Class III 부정교합인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든 군에서는 Class I 부정교합인 환자가 많았다(그림 7). Class II div.1군은 8세이후의 연령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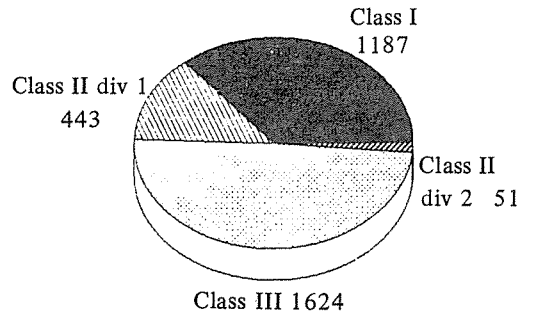


그림 5.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내원한 환자들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에 의해 구분하였을 경우 각각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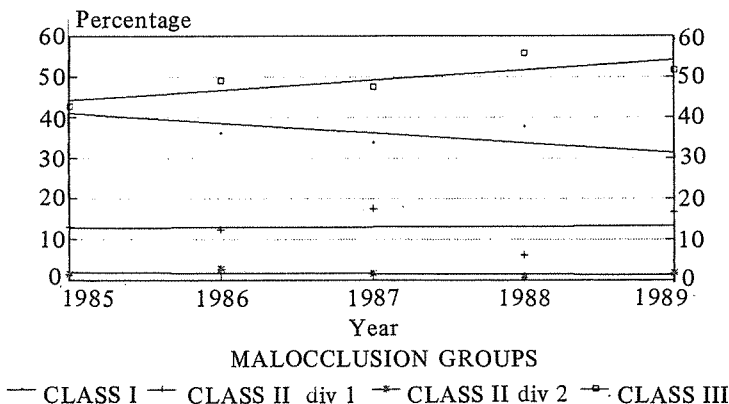


그림 6.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각 Angle씨 부정교합군에 있어서 차지하는 환자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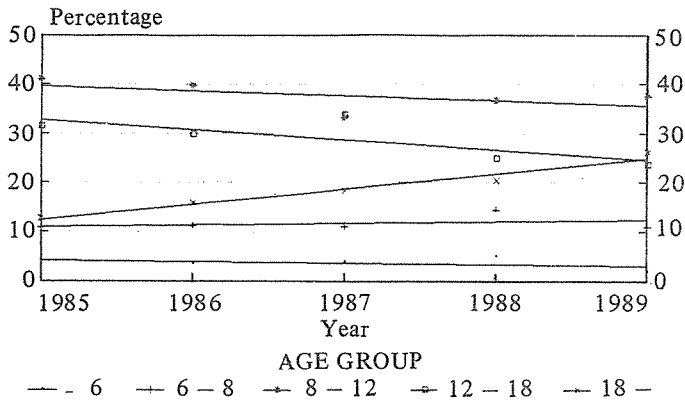


그림 9.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연령군별 내원환자수의
추세

이들이 혼합치열기나 그 이전의 연령에 있었을 때 교정치료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였으므로 잠재되어있던 교정치료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 18세 이상의 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교정치료를 전문적으로하는 개인 치과의원에서는 통계자료가 보고된 바는 없었으나, 환자의 진료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한정되어있는 본 병원과는 달리 오후 늦게 까지 진료하는 개인의원인 경우에는 환자의 연령분포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된다. 앞으로의 내원환자의 분석이 종합병원뿐 아니라 개인의원급에서도 역학조사가 되어야 총체적인 교정수요의 양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현재의 이 조사만으로 18세 이후의 환자치료에 수련의 교육에 역점을 두는 등의 누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이 3차 진료기관이라는 입장에

서 볼 때는 성인환자의 내원 비율이 증가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 및 증례분석, 치료법의 개선등이 성인환자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으로 내원환자를 구분하여 보면 Class III가 49.14%로 가장 많았고, Class I이 35.92%였으며, Class II div.1 및 div.2가 각각 13.40%, 1.54%였다 (그림 5). 1966년에서 1977년까지 본 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조사 결과⁵⁾ 즉, Class III 25.6%, Class I 51.1%, Class II div.1 및 div.2가 각각 20.0%, 3.3%와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1977년에서 1981년⁶⁾까지의 Class III 35.0%, Class I 42.3%, Class II div.1 19.7%, Class II div.2 3.0%와도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표 4).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Class

표 4.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역학조사들과의 비교

	서(1977)	서(1981)	본 연구	오(1983)	곡(1989)	노(1979)
Cl. I	51.1	42.3	35.9	55.1	26.3	39.2
Cl. II div.1	20.0	19.7	13.4	19.8	31.0	29.0
Cl. II div.2	3.3	3.0	1.54	2.5	1.6	3.5
Cl. III	25.6	35.0	49.1	22.6	41.1	28.3
비 고	서울대학병원 교정과 1966-1977	서울대학병원 교정과 1977-1981	서울대학병원 교정과 1985-1989	연세대학병원 교정과 1973-1982	경북대학병원 교정과 1979-1987	

거의 일정한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Class II div.2군 역시 어느 연령군에서나 적은 수가 내원하였다.

IV. 총괄 및 고안

조사년도인 1985년에서 1989년사이에 총 내원환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그림 2). 본 병원의 교정과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조사들과 비교해보아도 매년 교정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6)}. 예를 들면 1966년에 58명, 1976년에 270명, 1980년에 513명등에 비하면 최근에는 평균 700-800여명이 내원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됨을 반영하며 이와함께 사회적 안정 경제적인 발전이 이들의 교정치료를 가능케 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1,5,6)}.

남녀 구분했을 경우에 여자의 내원수가 남자에 비해서 1.55배 컸는데 이것은 1966-1977년⁵⁾, 1977-1981년⁶⁾ 조사 때와 비슷한 비율이며, 경북대학교 병원 교정과¹⁾에서의 비율 2:3과도 거의 같았다. 이와같은 사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부정교합 역학조사들과 비교한다면, 즉, 서(1984)⁷⁾등의 한국인 부정교합 역학조사에서 한국인 남녀의 부정교합 발생빈도의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던 것과 오(1966)¹¹⁾, Massler(1951)¹⁷⁾등의 조사에서 성별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던 점 또 유(1971)¹²⁾에서는 남자의 부정교합 이환율이 여자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교합의 치료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령군별로 남녀의 비율을 보면 18세 이후에는 여자가 70.3%로 여자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8). 추론한다면 일반인들이 아직도 교정치료의 목적을 기능보다는 심미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연령군별 내원환자의 분포를 보면 8-12세군이 951명(28.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군을 유치열기, 초기 혼합치열기, 말기 혼합치열기, 초기 영구치열기, 성인환자등의 5개연령군에 대략적으로 해당되는 6세미만, 6세이상 8세미만, 8세이상 12세미만, 12세이상 18세미만, 18세이상군으로 나누었던 바 말기 혼합치열기와 초기 영구치열기 환자들이 주로 내원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및 중,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는 8세-12세군과 12세-18세군은 그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군에 비해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냈다(그림 9). 이것은 과거 1966년에서 1977년사이의 본 병원 교정과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⁵⁾와 1977년에서 1981년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과거의 연구⁶⁾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이것은 매년 대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교육상황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18세이상의 성인 환자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교정치료를 대략 입시 이후로 미루는 환자의 경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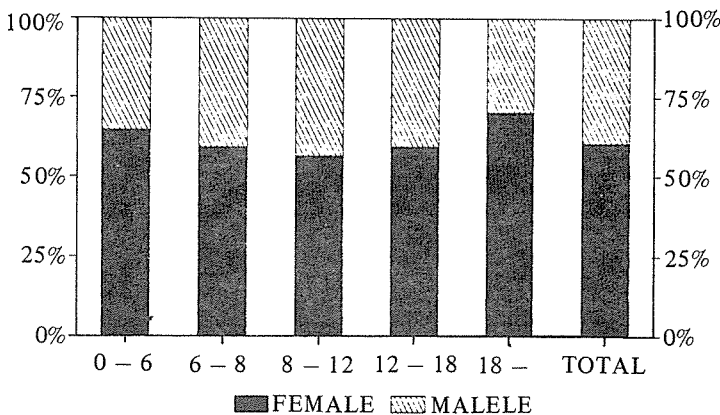


그림 8. 각 연령군에서 남녀의 비율

표 3.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 내원 환자의 분포

연도	연령 Class	-6	6-8	8-12	12-18	18-	Total
		85	Cl. I	6	22	111	
	Cl. II div 1	0	3	41	24	13	81 (13.04)
	Cl. II div 2	0	2	2	3	1	8 (1.29)
	Cl. III	19	40	101	79	25	264 (42.51)
86	Cl. I	2	21	88	86	32	229 (36.06)
	Cl. II div 1	0	5	34	17	22	78 (12.28)
	Cl. II div 2	0	0	7	6	4	17 (2.68)
	Cl. III	20	45	124	80	42	311 (48.98)
87	Cl. I	2	20	88	77	69	256 (33.68)
	Cl. II div 1	0	6	54	52	21	133 (17.50)
	Cl. II div 2	0	1	6	4	0	11 (1.48)
	Cl. III	27	57	104	123	49	360 (44.37)
88	Cl. I	2	16	91	60	60	229 (37.60)
	Cl. II div 1	1	3	14	9	10	37 (6.00)
	Cl. II div 2	0	1	0	0	3	4 (0.66)
	Cl. III	27	67	112	82	51	339 (55.67)
89	Cl. I	3	11	79	48	64	205 (30.15)
	Cl. II div 1	0	3	53	25	33	114 (16.76)
	Cl. II div 2	0	1	2	4	4	11 (1.62)
	Cl. III	10	60	121	83	76	350 (51.47)
Total	Cl. I	15	90	457	360	265	1187 (35.92)
	Cl. II div 1	1	20	196	127	99	443 (13.40)
	Cl. II div 2	0	5	17	17	12	51 (1.54)
	Cl. III	103	269	562	447	243	1624 (49.14)

()안은 PERCE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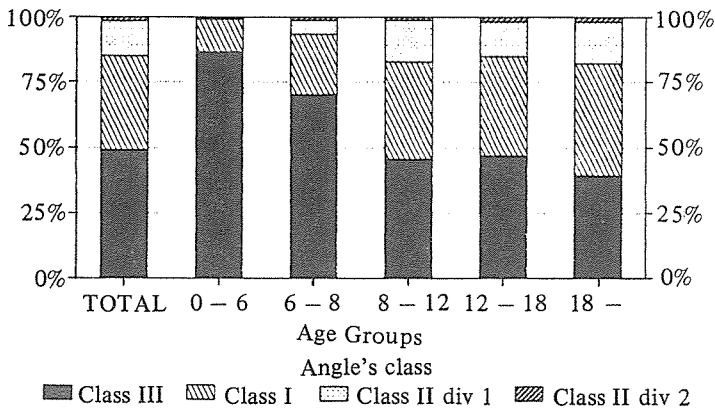


그림 7. 각 연령군별 Angle씨 부정교합의 분포

III 환자는 증가했고, Class I 환자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85년도에서 1989년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에도 역시 Class III 환자의 증가, Class I 환자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7). 또한 각 치과대학병원 교정과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노(1979)³⁾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Class III 환자의 증가, Class I 환자의 감소를 알 수 있다. 다른 대학병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경북대학병원의 경우 Class III가 41.1%, Class I 이 26.3%, Class II div.1이 31.0%, Class II div.2가 1.6%이었으며¹⁾, 연세대학병원의 경우, Class III가 22.6%, Class I 이 55.1%, Class II div.1이 19.8%, Class II div.2가 2.5%였다⁴⁾.

1979년에서 1987년까지의 경북대학병원 교정과를 내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곡(1989)¹⁾의 결과에서도 매년 Class III 환자의 증가 추세와 Class I 환자의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10). 이것은 그간 수년동안 배출되어온 교정사들이 많은 수의 Class I 환자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다고 인식되어지는 Class III 환자가 대학병원을 찾게되는 경

향이 높다고 해석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정교합의 분포를 조사한 과거의 연구들^{4,7,11,12,15,16,17)}과 비교하였을 경우, 본 논문의 결과는 Class III 부정교합 환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Class I 환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표 5). 이것은 Class III 부정교합에 대한 환자의 부정교합 인식도가 다른 부정교합에 비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는 Class III 부정교합의 치료는 일반 개인 의원급에서 대학병원으로 많이 전원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하겠다. Class I 부정교합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국내에도 많은 교정사들이 배출이 되어 많은 수의 환자들을 개인의원급에서 치료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부정교합은 그 정의에 따라, 또는 조사자에 따라서 그 조사결과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오(1966)⁵⁾의 조사에서는 부정교합자 비율이 37.3%이었고, 대한치과의사협회(1983)⁴⁾에서는 7.2%, 서(1984)⁷⁾에서는 64.1%이었다. 과거 부정교합이나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이 치과의사 사이에서도 높지 못하였고, 또한 공중보건학¹³⁾ 측면에서도 중대 구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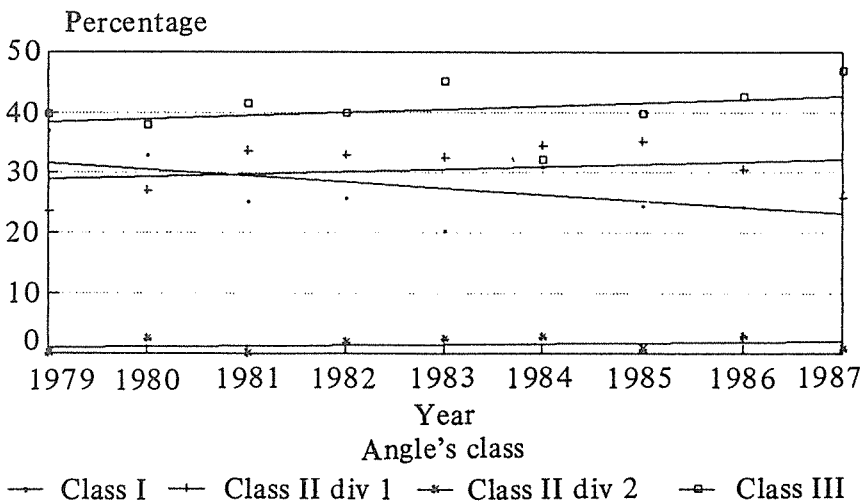


그림 10 1989년 발표된 경북대학교 교정과 내원환자 추세에 관한 논문에서 인용(경북대학교 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에서도 Class III 환자의 증가추세가 나타났으며, Class I 환자의 감소경향을 보였다.)

표 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서(1984)	유(1971)	오(1966)	Massler(1951)	Altemus(1959)	Ast(1965)
Normal	35.9	8.94	62.7	21.16	15.68	4.7
Cl. I	49.1 (76.6)	60.52 (66.52)	21.0 (56.3)	50.07 (63.5)	66.40 (79.5)	69.9 (73.3)
Cl. II div. 1	6.5 (10.1)	8.24 (9.10)	8.5 (22.8)	16.68 (21.1)	10.55 (12.6)	23.8 (25.0)
Cl. II div. 2		12.88 (14.10)	2.6 (7.0)	2.71 (3.4)	1.58 (1.9)	
Cl. III	8.5 (13.3)	9.41 (10.30)	5.2 (13.9)	9.43 (12.0)	4.99 (6.0)	1.6 (1.7)
비 고	7-12세	연세대학생 2378명	6-12세	Caucasian	Negro	10-12세 New York

()은 각 Class 별 percentage를 나타냄

병(major dental disease)이라 하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라 보기 때문에, 부정교합에 대한 역학조사가 크게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내원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교정환자는 전체 일반환자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점을 알 수 있다^{8,9,13}. 그러나 최근들어 교정환자가 급증하는 이때 좀더 객관적인 부정교합에 대한 역학조사가 일반 환자 및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또 교정전문의원 및 대학병원급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교정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문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 조사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과거에 비해 총 교정환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2. 8세에서 12세, 12세에서 18세까지의 초, 중, 고등학생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18세 이상의 환자가 증가되었다.
3. Class III 부정교합환자의 증가와 Class I 부정교합환자의 감소 추세가 있었다.

V. 결 론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병

원 교정과에 내원한 총 33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내원환자의 분포, 성별에 따른 내원 환자의 비율, 연령별 환자의 분포,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에 따른 분포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적인 교정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여자환자가 남자에 비해 1.55배 더 많았다.
2. 내원한 환자를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에 의해 조사해본 결과, Class III 부정교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조사기간중에도 계속적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반면 Class I 부정교합군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며, 조사기간중에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분포는 Class I이 35.92%, Class II div.1이 13.40%, Class II div.2가 1.54% Class III가 49.14%이었다.

3. 8세에서 12세, 12세에서 18세군의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반면 18세이상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VI. 참고 문헌

1. 곡덕부, 박동옥, 경희문, 권오원, 성재현 : 경북대학교 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의 분포 및 변동추이, 대치교정지, 19(3) : 35-47, 1989.

2. 김종배 : 공중구강보건학 : 15, 1987, 고문사.
3. 노태래 : 부정교합의 치아부정양상에 관한 연구, 대치교정지, 9(1) : 39-63, 1979.
4.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인 치과질환 실태 조사 보고, 1983.
5. 서정훈 : 교정과 환자 내원상황에 관한 연구, 대치협지, 15(9) : 745-748, 1977.
6. 서정훈 : 부정교합 환자의 내원상황에 관한 연구, 대치협지, 19(12) : 1027-1031, 1981.
7. 서정훈, 남동석, 장영일 : 한국인 부정교합 발생빈도에 관한 역학적 연구, 대치교정지, 14(I) : 33-37, 1984.
8. 신형식, 이광희 : 원광대학교 부속치과의원 외래환자 유효치과 의료수요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II), 대치협지, 21(2) : 151-156, 1983.
9. 신형식 : 원광대학교 부속치과의원 외래환자 유효치과 의료수요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III), 대치협지, 21(12) : 997-1003, 1983.
10. 오영진, 유영규 : Y대학교 부속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환자의 분류 및 분포에 관한 연구, 대치교정지, 13(1) : 63-71, 1983.
11. 오응서, 장세만, 손동수 : 한국인 아동의 부정교합에 관한 연구, 종합의학, 11(3) : 93-96, 1966.
12. 유영규, 김남길, 이효경 : 연세대학생 2, 378명을 대상으로 한 부정교합 빈도에 관한 연구, 대치교정지, 2(1) : 35-40, 1971.
13. 이승우, 김주환, 김남규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분석 보고,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2) : 23-25, 1967.
14. Ackerman, J.L., and Proffit, W.R.: The characteristics of malocclusion: A modern approach to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Am. J. Orthod., 56(5):443-454, 1969.
15. Altemus, L.A.: Frequency of the incidence of malocclusion in American Negro children aged twelve to sixteen: Angle Orthod., 29(4): 189-200, 1959.
16. Ast, D.B., Carlos, J.P., and Cons, N.C.: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malocclusion among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upstate New York, Am. J. Orthod., 51(6): 437-445, 1965.
17. Massler, M., and Frankel, J.M.: Prevalence of malocclusion in children aged 14 to 18 years, Am. J. Orthod., 37:751-768, 1951.
18. Moyers, R.E.: Handbook of Orthodontics, 4th ed., 1988, Year Book Medical Publisher, INC.

– ABSTRACT –

THE STUDY ON THE ORTHODONTIC PATIENTS WHO VISITED
DEPARTMENT OF ORTHODON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on-Sik Yang, D.D.S., M.S.D., Ph. D.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1965 to 1974, the total number of the orthodontic patients who visi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only about 1000. But in the last several years the number has been increasing so rapidly that we have about 1000 new orthodontic patients every year. This made it necessary to undertake an epidemiologic study on them so that we can accommodate their orthodontic needs adequately.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was done in an attempt to provide reliable quantitat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malocclusion-Angle's classification etc. – of patients who visited Department of Orthodon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1985 to 1989.

The total number was 3305.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annual trend in total number during 5 years, frequency in each age and sex group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Angle's classification.

It was found that

1. Total number of orthodontic patient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female patients was 1.55 times as high as that of male.
2. Percentage of Class III malocclusion has been increasing, but that of Class I decreasing. Each percentage of Class I, Class II div. 1, Class II div. 2 and Class III was 35.92%, 13.40%, 1.54%, and 49.14%.
3. Percentages of 8 to 12-year-old group and 12 to 18-year-old group showed decreasing trends, but that of adult patients showed increasing trend.

Key Words: An Epidemiologic Study, Angle's Classification, Orthodontic Patients.